

OPEC의 하류부문 진출 현황

OPEC (석유수출국기구)의 정제능력 확대와 아울러 국제석유시장에서의 하류부문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92년 OPEC 회원국들의 국내 정제능력은 전년 대비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정제능력을 전쟁 전의 수준으로 고려할

OPEC의 국내정제능력('92년말 현재)

(단위 : 천b/d)

	원유	Vacuum Distillation	Thermal Operations	Catalytic Cracker	Catalytic Reformer	Catalytic Hydro-cracker	Catalytic Hydro-refining	Catalytic Hydro-treating	Total Conversion	Conversion / Topping Ratio (%)
중남미										
에콰도르	135.1	38.9	22.8	14.5	2.5	-	-	-	37.3	27.6
베네수엘라	1224.0	559.4	134.1	217.9	6.0	-	180.1	95.3	352.0	28.8
계	1359.1	598.3	156.9	232.4	8.5	-	180.1	95.3	389.3	28.6
아프리카										
알제리	474.5	15.0	-	-	55.6	-	-	23.6	-	-
가봉	20.0	-	7.2	-	1.4	-	-	5.0	7.2	36.0
리비아	342.0	7.5	-	-	14.2	-	-	37.8	-	-
나이지리아	400.5	124.5	-	82.7	70.1	-	-	109.2	82.7	20.6
계	1237.0	147.0	7.2	82.7	141.3	-	-	175.6	89.9	7.3
중동										
이란	946.0	372.8	97.3	-	123.2	111.2	20.6	105.4	208.5	22.0
이라크	550.0	82.7	-	-	53.5	38.0	100.0	13.0	38.0	6.9
쿠웨이트	670.0	338.0	54.0	42.0	33.0	170.0	205.0	263.0	266.0	39.7
카타르	63.0	-	-	-	12.0	-	-	42.4	-	-
사우디아라비아	1750.0	431.8	71.9	93.1	192.2	132.2	44.7	478.3	297.2	17.0
U A E	192.5	43.6	-	-	30.1	27.0	-	100.5	27.0	14.0
계	4171.5	1268.9	223.2	135.1	444.0	478.4	370.3	1002.6	836.7	20.1
극동										
인도네시아	782.8	289.1	99.1	13.0	67.2	98.2	13.5	53.5	210.3	26.9
OPEC 계	7550.4	2303.3	486.4	463.2	661.0	576.6	563.9	1327.0	1526.2	20.2

때, '92년말 현재 상압정제능력이 755만b/d, 2차시설이 153만b/d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 OPEC 제국은 상당 규모의 정제능력 확대와 고도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93년 초 이란의 1단계 사업인 15만b/d 규모 Arak 정제시설의 건설을 필두로 하여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OPEC의 정제능력 확대 추진은 증가하는 내수 수요의 충족을 위한 것외에 국제 석유시장에서 OPEC의 점유율을 제고시키려는 데도 목적이 있다.

'92년도에 이란은 아바단 정유공장의 감압시설 및 기타 정제시설을 재가동시켰다. 이라크는 바스라 정유공장의 잔존시설을 재가동 시킴으로써 총정제 능력은 '90년 걸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라크의 총정제 능력은 내수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미나알마디와 미나 압둘라 정유공장의 정제능력이 41만b/d로 증가하였으며, '93년 중반 수아아바 정유공장이 재가동에 들어가면

약 47만b/d로 증가하고, 금년 말에는 60만b/d까지 이를 전망이다. 쿠웨이트는 이들 정유공장의 대대적인 복구 및 고도화 계획을 추진중이다.

나이지리아는 '91년도에 발생한 일련의 정제시설사고 때문에 '92년도 가동율이 약 65%에 머물렀다. 그러나 Port Harcourt 정유공장의 재가동으로 '93년도 정제능력은 증가할 것이다. '88년 이후 가동 중지되었던 Warri 정유공장의 FCC 시설은 복구작업 끝에 금년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양부정유공장의 MTBE 생산시설은 지난해 8월에 가동을 시작하여 제품규격이 까다로운 미국 및 유럽시장에 대한 제품수출 능력을 확대시켰다. 사우디는 MTBE 생산시설 추가건설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국내 정제시설의 보틀네킹 및 고도화를 통한 정제능력 확장 계획에 착수하였다.

베네수엘라는 북미 제품시장의 변화 추세에 대응하여 시설확장 및 현대화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OPEC의 해외정제시설 진출현황('92년말 현재)

(단위 : 천b/d)

	자본 소유 기준				원유 공급 계약 기준			
	아시아/극동	서유럽	미국	계	아시아/극동	서유럽	미국	계
알 제 리	-	-	-	-	-	-	-	-
에콰도르	-	-	-	-	-	-	-	-
가봉	-	-	-	-	-	-	-	-
인도네시아	-	-	-	-	-	-	-	-
이 란	14.9	-	-	14.9	14.9	-	-	14.9
이 라 크	-	-	-	-	-	-	-	-
쿠웨이트	-	260.2	-	260.2	-	260.2	-	260.2
리 비 아	-	231.3	-	231.3	-	383.0	-	383.0
나이지리아	-	-	-	-	-	-	-	-
카 타 르	-	-	-	-	-	-	-	-
사우디아라비아	94.5	-	307.5	402.0	270.0	-	550.0	820.0
U A E	-	87.6	-	87.6	-	112.8	-	112.8
베네수엘라	-	221.2	646.5	867.7	-	263.2	708.0	971.2
계	109.4	800.3	954.0	1863.7	284.9	1019.2	1258.0	2562.1
Ref. Cap-1992	10568.6	15011.2	15575.0	41154.8	10568.6	15011.2	15575.0	41154.8
Share of foreign								
OPEC Ref. Ca. %	1.04	5.33	6.13	4.53	2.70	6.79	8.08	6.23

OPEC 회원국 중 7개국은 '92년도에 주로 아시아, 극동지역 및 유럽을 대상으로 해외 하류부문을 진출을 확대시켰다. 쿠웨이트,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이 적극적인 의욕을 나타내었으며, 이란, 나이지리아, UAE 등이 가세하였다.

쿠웨이트는 원유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 인도, 일본, 태국 등에 하류부문의 합작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태국에서는 1년간 30여개의 주유소를 확보하고, 향후 200여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리비아는 '92년 초에 독일 최대의 석유유통 회사 가운데 하나인 HEM사의 지배주주가 되었다. 또한 이탈리아 본토와 사르디니아에 유통체인을 확대시켰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외에서 하류부문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 사우디-일본 정유회사는 사우디와 일본에서 각각 수출용 정유공장 증설을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 CIS, 유럽 및 미국에서도 하류부문에 합작진출 하였다.

베네수엘라 는 지난해 중반 Savannah에 있는 2만 8천 b/d 규모의 아스팔트 생산시설을 아모코사로부터 매입하였다. 또한 휴스턴 소재 26만 5천 b/d의 Lyondell 정유공장의 지분을 50% 소유키로 하는 의향서에 서명하였다. 이 정제시설은 베네수엘라의 초중질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미국 캔사스의 Farmland사 및 스페인의 Plana 정유공장 지분취득을 위하여 조인된 의향서는 현재까지 최종 합작투자 계약의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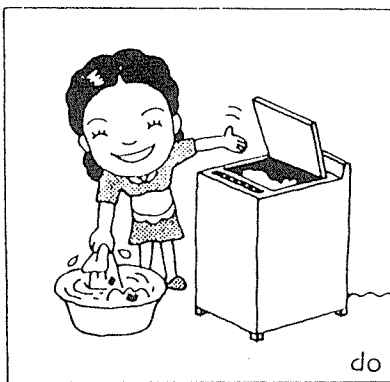
'92년 OPEC의 정제부문 해외진출현황은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지분 소유기준으로 정제능력을 산출한 해외정제능력은 약 186만 b/d이고, 원유공급계약기준으로 보면 256만 b/d에 이르고 있다. ♠

■ (OPEC Annual Report, '92)

생활속의 환경운동

세탁물 모아서 빨래하자

비누 직접 만들어 쓰고 헹굼물도 재활용을



세탁물을 모아서 한통이 차면 빨래를 한다. 세탁기에 넣기 전에 빨래를 찬물에 담가두면 위험한 염소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빨래가 하얗게 된다. 세탁물을 미리 비눗물에 담가놓자. 빨래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가급적 세제를 쓰지 말고 비누를 빵아 녹여 쓴다. 빨래비누는 직접 만들어 쓰자. 가정소다(양잿물) 1백 75g을 물 3백 30cc에 녹여 튀김을 하고 남은 식용유 1·2ℓ와 섞는다. 백백해질 때까지 30분정도 저은뒤 우유팩등에 넣어 1주일정도 지나면 비누가 된다. 불가피하게 세제를 쓸 때는 인산염이 들어 있지않은 세제를 쓴다. 인산은 적조현상을 유발하여 물속의 산소를 고갈시키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탁헹굼물은 받아뒀다가 걸레도 빨고 베란다 청소에도 활용할 수도 있다.